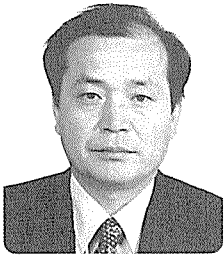


# 석유 부국 이라크엔 떨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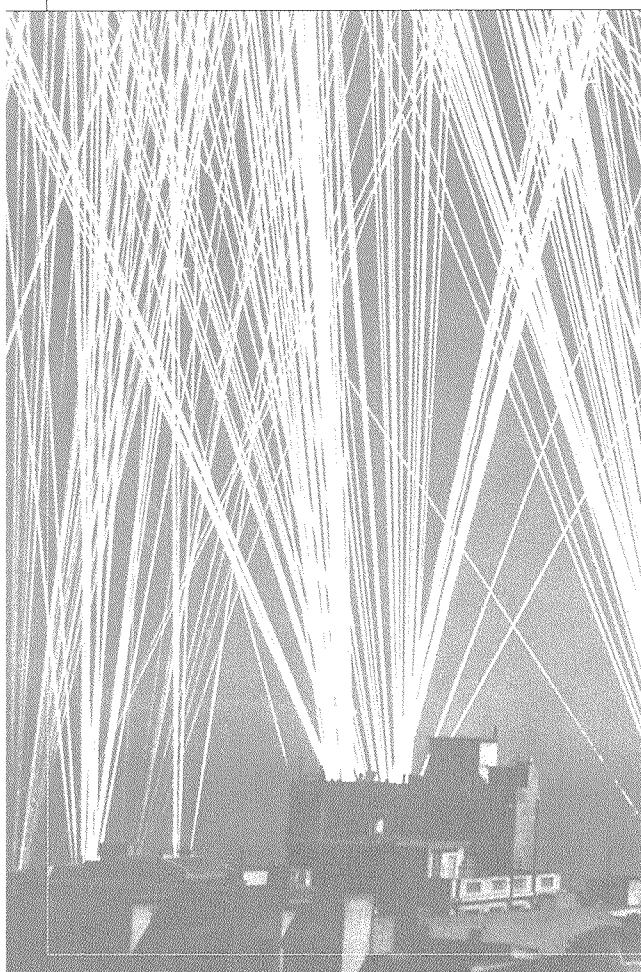


홍 성 민  
중동경제연구소장

바그다드로 가는 길은 멀고도 두려웠다. 어렵사리 입국비자를 얻어서 이라크로 떠나는 모든 차량들이 운집해있는 요르단의 '무잠마 바그다드' 터미널에서 오후 8시 불안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차량은 낡아빠진 소형 승합차였는데 암만에서 이라크 국경까지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무척 흔들렸다. 4시간여의 불안한 공포의 시간과 함께 이제 막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라크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다. 입국절차를 마치는데 인적도 드문 시간인데도 2시간 반이나 걸렸다.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마치고 바그다드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불안한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현대건설이 시공했다는 고속도로는 곧게 뻗은 문자그대로 탄탄대로(坦坦大路)였다. 6시간 정도를 더 달려서 바그다드 중심가에 있는 '짜디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르키고 있었다. 꼬박 13시간 정도를 달려온 것이다.

바그다드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주로 외신과 서적을 통해서만 보던 이라크의 상황은 현실과 커다란 거리감을 갖고 있었다. 굶주림과 험벗음, 기아와 빈곤, 가난과 질병 등 어눌한 거리만을 연상하며 도착한 바그다드 시내는 우리가 언제 전쟁을 치렀느냐고 항변이라도 하듯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다. 시장엔 활기가 넘치진 않았지만 여느 아랍국가들의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고, 아리사메라 불리는 시내 중심가의 시장엔 고급 브랜드의 이태리, 프랑스 상품과 터키 및 중국의 상품이 즐비하였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전자제품과 중고자동차로 이곳에서는 한국제품이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LG를 비롯한 삼성, 대우의 간판은 과장되게 표현하면 한국의 길거리에서보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도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수입해서 쓰는 한국의 중고차에서 한글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티그리스 강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평야는 문자 그



ℓ 당 1센트라는 세계에서 값싼 휘발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감을 구하려 가는 이낙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전기가 모자라 제한 송전을 하고 있음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라크가 지금은 잠자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현주소이다.

대로 지상의 낙원과도 같았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 없이 펼쳐지는 대추야자 숲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추수가 끝난 밭에는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간간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 농사를 짓는 곳과 밀인지 쌀인지를 경작하는 드넓은 밭들도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두 강(江)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 메소포타미아의 이라크! 누구라도 이 모습을 보면 이라크가 '풍요와 평화'의 땅임을 실감할 수 있고, 무한한 농업개발의 잠재력을 읽을 수 있으리라! 풍부한 물과 넓게 펼쳐진 메소포타미아의 들은 있는 그 자체로 내게 풍요와 만족을 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담 후세인의 동상이 우뚝 서있는 수도 바그다드 중심가의 광장도 '알·화라두스'라 명명했는지 모르겠다. 코란에서는 '천국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천국'을 의미하는 말을 '화라두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낙원이라 부르는 paradise라는 말도 화라두스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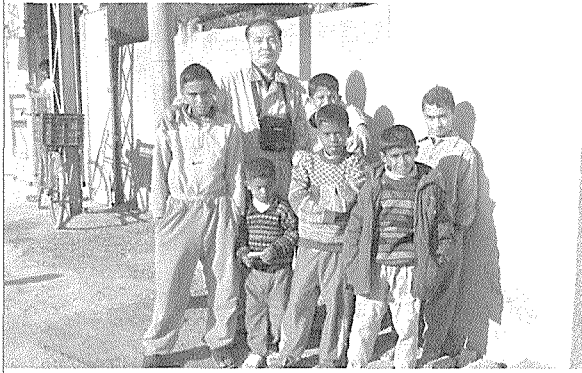
풍요의 땅 이라크는 역시 천혜의 자원이 있는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10% 정도를 갖고 있는 이라크는 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2의 석유부국이다. 지금 이라크는 그 석유 때문에 커다란 곤경에 처하고 있다. 이라크, 이란, 리비아 3국의 매장량 합계는 전세계 매장량의 약25%를 점하고 있는 사우디의

매장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이 중동 석유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3국의 석유 이권을 장악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논리는 이란을 '악의 축' 반열에 올려놓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라크는 석유만 풍부한 것이 아니다. 터키의 타우르스(Taurus) 산맥에서 발원하는 1850km의 티그리스강과 2350km의 유프라테스 강을 갖고 있다. 풍부한 수량의 이들 두 강이 마치 어머니의 젖기슴처럼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을 도도히 흐르다가 '에덴의 동산'이라 불리는 알·꾸르느에서 서로 만난다. 실제로 알·꾸르느에는 밭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아담의 나무'라고 불리는 고목이 어머니의 모습처럼 누워 있고 또 아직까지 푸른 잎을 자랑하며 강가에 우뚝 서 있다. 그리고 그 옆엔 커다란 전통시장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인간의 생활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자고 그리고 입는 것이다. 이 풍요로운 땅에서 이라크인들은 먹고 자고 그리고 입고 살아왔다. 그 중에서도 먹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라크인들에 있어서 먹는 문제만큼은 고대 바빌론 시대 이후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라크들의 인심이 후하고 좋은 것도 바로 이러한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 같다. 이란-이라크 전쟁(1980-88)이라는 장기간의 전쟁속에서도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음도 바로 이러한 풍요로움이 이유이며, 걸프전 이후 12년에 이르는 금수조치와 UN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어느 곳을 가거나 환대와 정이 넘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 같다. 1996년부터 재개된 석유수출(oil for foo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석유의 수출량이 늘어나 지금은 다소 경제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이라크는 본질적으로 식량에 관한 한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걸프전 이후 가장 극심하던 경제적 어



'아담나무'가 있는 남부도시 '꾸르나'의 전통시장, 이 시장에서 전쟁의 공포는 찾아볼 수 없다.



북부지방 앗시리아에서 만난 천진난만한 아이들

러움의 시기에도 대추야자의 수출이 모든 수출품의 약 50%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대추야자란 그다지 힘들어 농사를 지을 필요 없이 그저 수확기에 수확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대추야자가 강을 따라 숲을 이루며 무한히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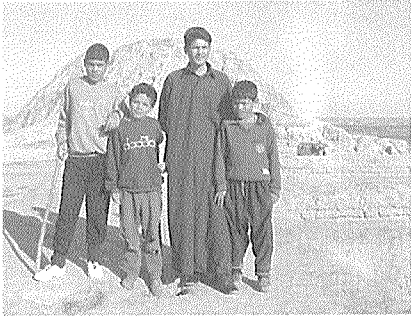
이라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른 아랍국가들에 비해 공장이 많다. 그것 또한 이라크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된다. 이라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굴뚝의 시커먼 연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라크 산업구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이고 농업의 비중은 약 20%이며 나머지는 서비스 분야이다. 2차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산업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엔진역할을 한다. 비록 석유화학 분야에 치중돼 있기는 하지만 이라크의 기술수준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받고 있다. UN의 핵사찰도 이러한 측면에서 은근히 이라크의 기술수준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체 면적의 약 60%가 사막이기는 하지만 다른 아랍국가들과는 다르게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다. 그래서 이라크의 사막은 다른 어느 나라의 사막보다도 개발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여기에 덧붙여 2300만명에 달하는 인구잠재력, 그리고 높은 교육열(실제로 이라크에는 대졸 실업자가 무수히 많다)은 이라크의 장래 성장 가능성을 밝혀주는 좋은

햇불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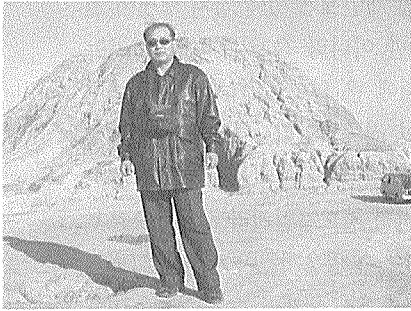
ℓ 당 1센트라는 세계에서 값싼 휘발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펄감을 구하러 가는 아낙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전기가 모자라 제한 송전을 하고 있음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라크가 지금은 잠자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현주소이다. 이라크가 긴 잠에서 깨어나 큰 기지개를 켜고 다시 시작할 때 이라크는 가까운 시일에 성장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우리는 사담 후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증오한다.”라고 귀뜸 해주던 어느 시민의 말이 기억난다. 경제가 어떻든 미국은 싫다는 논리이다.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은 미국만 아니면 어느 나라도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곳에서 반미의 감정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서둘러야 한다. 과거 중동 붐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5만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풍요의 땅 이라크를 누볐지만, 이제 몇몇 되지 않는 우리 기업의 현지 임직원들만이 쓸쓸히 빈 사무실을 지키며 불확실한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인의 이미지는 아직도 매우 좋았다. 현재 상품 수입도 중국과 한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일본은 싫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일본인도 미국인과 같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대(Hyundai)의 이미지는 무척 좋았다. 걸프전때 모든 외국기업들이 철수했지만, 한국의 현대기업은 철수하지 않고 아직까지 있다는 점이 그들에게 신용을 얻은 것이다. 그밖에도 LG나 삼성의 제품이 질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좋은 기회이다. 가까운 내일을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자! 이라크인들은 현세보다는 내세를 더 생각하는 미래지향형의 국민이다.

앗시리아 유적지에서 일행이 먹다 남기고 온 쓰레기 봉투를 앞다투어 집어들고 달리던 이라크 어린이들의 자존심이 생각난다. 준비해간 도시락을 우리끼리 먹기가 좀 뭐해서 유적지에서 뛰어 놀던 두세명의 아이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불렀더니 모두들 도망쳐버리고 만다. 우리가 식사를 마친 후 동네 아이들이 떼를



북부지방 앗시리아에서 만난 천진난만한 아이들



북부지방 앗시리아 유적지에서 필자



남부지역 우르지역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수리하는 사람들, 타이어는 모두 닳아서 선(線)은 아예 없고 유리알 처럼 반질반질하다.

지어 나타났다. 우리와 어울려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들었다. 그 순박한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일행이 탄 차가 커브를 돌리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우르르 나타나 우리가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를 경쟁이라도 하듯 들고 내달린 것이다.

내 가슴은 심한 충동질을 하였고 드디어 목이 메어 눈물이 앞을 가린 것이다. 한국에서는 남아도는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그 배고픔과 굶주림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 허기(虛飢)를 침으로 막아가면서 우리가 떠나가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그 아이들의 가슴 아픈 자존심은 그들이 성장했을 때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昇華)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전쟁의 위협속에서 공포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그들은 인내로서 이라크를 지켜낼 것이다. 세계 최고(最古)의 문명을 자부하는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온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바빌론 문명과 세계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을 가졌고 세계 제2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가 '문명의 충돌' 한가운데 서 있다. 이라크는 분명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풍부한 자원' 때문에 전세계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인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라크는 문명의 한가운데 있었던 문명국가라는 사실을!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흐르더라도 먼 미래에 이라크는 항상 언제나 이라크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요르단의 암만으로 돌아오는 야심한 밤길의 고속도로에 비가 내린다. 요르단 쪽으로 더욱 가까이 접근할수록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이내 얼어서 눈으로 내린다. 이라크인들의 고통이 눈물되어 내 가슴속 깊이 다가온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외부세계에 알려 달라"는 절규인지도 모른다. 나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름답고 향기있는 꽃에는 벌과 나비도 더 많이 달려든다. 이라크가 바로 그렇다. 엄청난 자원(資源)의 매력이 이라크인들을 전세계의 미움거리로 만든 것이다. 이라크가 미운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라크인들을 미워하고 있다. ☹